



**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 1 회

# 『충무공 이순신』

글쓰기 대회 응모작품



학생 성명	한글	김예련	영어	Yeryun Kim			
그룹 (O 표)	옥포상		한산상	o	명량상		
소속 학교	앤아버 한국학교 미시간 한국학교 협의회						
한국에서의 학교 경험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음: 예 ( ) 아니오 ( o )			다녔을 경우: ( )학년부터 ( )학년까지			
학년/생년월일	5	학년	2007	년	9	월	20 일
제목	현명하고 용감한 이순신						

<b>응모 번호</b> (이 난은 기입하지 마세요)	
---------------------------------	--

<b>응모 번호</b> (이 난은 기입하지 마세요)	
---------------------------------	--

줄 아래에서 바로 쓰기(타이핑) 시작하십시오.

---

이순신 장군은 용감한 사람이다. 이순신 장군은 한 번도 진적이 없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부터 조선을 구했다.

이순신 장군은 1545년 4월 28일, 조선의 한양에서 태어났다. 그 때 조선은 일본의 해적들이 자주 쳐들어 오고, 나쁜 관리들이 많아서 백성들이 살기 힘들었다. 결국 1592년 일본은 조선에 쳐들어왔다. 7년이나 계속되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이 쳐들어 올 것을 미리 알고 거북선을 만들었다. 거북선은 일본군이 배 위로 뛰어올라지 못하게 철판과 뾰족한 못으로 덮은 배이다. 세계에서 제일 처음 만든 철갑선이라고 한다. 거북이 머리에 있는 대포로 일본배에 대포알을 펄펄 쏠 수 있었다. 배 바닥은 넓고 평평해서 빨리 돌 수 있었다. 섬이 많고 바닷물이 빨리 흐르는 우리 나라 바다에 아주 딱 맞는 배였다.

일주일이나 계속된 한산도 대첩에서는 우리 수군이 학 날개를 퍼듯 적을 둘러싸서 왜선 73척을 해치웠다. 5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 전술을 전세계 해군에서 공부한다고 한다.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현명한 분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현명하고 용감한 이순신 장군을 싫어하는 나쁜 관리들이 거짓말을 해서, 이순신 장군은 두 번이나 백의종군이라는 벌을 받게 된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병사들과 같은 흰 옷을 입게 하는 벌이다. 그렇게 억울하게 벌을 받게 되어서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고, 실망하셨을까? 그래도 임금님을 원망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벌을 받으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이해가 잘 안 되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억울한 벌도 참고, 오직 나라를 위한 걱정을 하신 거라고 하였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이순신을 나이든 어머니께서 보러 오시다가 그만 병에 걸려 돌아가시게 되었다. 이순신 장군은 이날 밤 난중일기에 ‘병드신 어머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절로 흐른다.’라고 쓴다. 이순신 장군은 벌을 받는 중이어서, 어머님의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다. 얼마나 슬펐을까?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에 100 번이 넘게 어머니와 가족에 대해 쓰셨다고 한다.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벌을 받고 돌아온 이순신 장군은 겨우 12 척의 배로 130 척이 넘는 왜선과 싸웠다. 유명한 명량해전이다. 겁을 먹은 수군

병사들에게 이순신 장군은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며 병사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는다.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군사들과 함께 싸웠다.

임진왜란의 마지막인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과 우리 수군은 도망가는 왜적을 끝까지 물리친다. 이 때 날아온 총알에 이순신 장군은 쓰러졌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하시면서 나라를 위한 걱정을 하셨다.

이순신 장군은 세계 최초의 거북선을 만들고, 세계 최고의 전술을 생각해냈고, 병사들을 아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항상 어머니와 가족을 생각하는 따뜻한 분이였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 조선을 구해냈다.

나는 이순신 장군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은 점을 존경한다. 그래서, 나도 아무리 어려워도 열심히 한글 공부를 하고,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려고 한다. 요즘 분수와 곱셈을 배우는데 참 어렵다. 그래도 포기 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연습해 보겠다. 이순신 장군처럼 아주 현명하고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노력해 보겠습니다!